조선왕국전도(프랑스)



-1737년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이 그림

소장처- 서울 역사 박물관

프랑스지도학자 당빌(D'Anville,1697∼1782)이 제작한 조선왕국전도는

1737년 프랑스 선교사 뒤 알드가 쓴 ‘중국통사’에 소개된 지도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보다 130여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지도중에서 한국에 대한 첫 지도라는 점에서 가치가있다.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영토로 표기하고 있는 서양 최초의 조선전도로, 신중국지도첩에 삽도로 들어있다.

(조선왕국전도)는 매우 정확한 것이 특징으로 당시 현존하던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제국에관한 모든 지도와 참고자료들을 검토하여 지형,산세,수 및 경․위도까지 매우 정확하다. 조선왕국전도에는 간도지역이 분명하게 우리 영토로 표시되어 있어, 당시 중국이 간도에 대한 조선의 영토권을 인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러시아에 편입된 두만강 북쪽의 녹둔도까지도 조선영토로 나타내고 있는 지도에 독도가 ‘Tchianchantao(千山島)’로 표기되어 울릉도와 나란히 육지에 가까이 그려져 있다. 이는 당시에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있다. 대부분의 지명들은 중국어식 발음표기에서 온 것이지만 일부는 일본식 한자 발음의 표기이다.
국경은 압록강 위까지 되어 있고,조선 팔도의 이름을 모두 표기하였다. 백두산의 이름은 'PodaChan',울릉도는 'FangLingTao',독도로 추정되는 섬은 'TchianChanTao',제주도는 'Kitcheou',서울은 'KingKiTao',부산 동래 'TongLai',압록강은 'YalouKiang'으로 표기되어 있고 도시는 부호로 표시하고 있다.동해의 명칭은 표기되어 있지 않다. 이 지도는 왜곡되었던 한국의 형태가 실제적인 모습에 가까워졌고,18세기유럽의 동아시아지도의 모델이 되었으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가장 정확한 지도라는 점 등에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중국의 실측지도인『황여전람도』를 바탕으로 한 국경의 표현이 압록강과 두만강 본류가 아닌 이북으로 표시되어 당시 조청 국경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료라는 점은 이 지도가 지도학적으로 한국과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지도임을 말해준다.

**-출처 :『European의 상상, 꼬레아』서양고지도 특별전 도록**

**-사진 출처:네이버 서울 연합뉴스**

 조선왕국전도에서는 우산도(독도)와 울릉도를 한국 동해안에 더욱 근접하게 그려서 독도(우산도)가 한국 영토 임을 정교 하게 표시 하고 있다. 그렇기에 조선인들을 비롯하여 서양의 지리학자도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지도처럼 우산도(독도)가 울릉도보다 안쪽에 그려져 있는 것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더 강조 해 주는 것이다.
또한 19세기 후반까지 독도의 이름이 '우산도'였던 사실도 독도(우산도)가 '우산국'의 영토였음을 분명 하게 증명 하는 것이다.